

<2010년 8월 16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고 외갓집에 가는 길에 형 에서에게 쫓기다가 밭은 땅이 있다. 그 땅은 루스 성이었다. 야곱은 거기서 돌을 베개로 삼고 잠을 잤다.

그 땅을 떠날 때, 베고 자던 돌을 세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네가 누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하셨다.

야곱은 그 땅의 이름을 ‘벧엘’로 지었다. 하나님께 약속 받은 땅으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름이다.

야곱이 외갓집에서 조건을 세우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을 얻게 되어 가정과 민족을 일으키게 되었고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졌다.

2.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가나안 땅에 갔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셨다. 아브라함은 자기에는 자녀가 없다고 했다. 아이를 낳을 때가 지나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때 하나님은 약속하시기를 “내년 이맘때쯤 네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으리라.” 하셨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좋아하며 그 말씀에 희망을 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았다.

결국 약속대로 아들을 낳았다. 이는 그 귀한 이삭이었다. 그 줄기에서 귀한 야곱이 나오고, 귀한 요셉이 나왔다. 그 신앙의 발판과 터전에서 결국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온 인류에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이 나왔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얻게 된 것이다. 모두 이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후대까지 길이길이 남도록 지구촌에 큰 역사가 일어난다. 당세만 생각하지 말고 받은 것을 귀히 여겨라.

3. 요셉은 꿈에 이집트 대국의 총리대신이 될 것과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뛰어나게 될 것을 약속 받았고, 조건을 세우고 그대로 되었다. 꿈으로도, 생시에도 약속을 받은 것이다.
4. 예수님은 세상 끝 날이 되면 재림한다고 2000년 전에 약속하셨다. 예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이 시대 사명자를 통해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주님의 말씀대로 예비하고 주를 맞는 자들은 영원한 천국의 약속을 받게 된다.
5. 하나님도 주님도 약속하신 대로 때가 되면 행하신다. 그러나 받을 자가 준비한 대로 받게 된다. 그때가 가까웠든지, 멀었든지 꼭 예비하면서 기뻐하며 희망으로 기다려야 된다.